

시울 주보

제2476호

2023년 11월 26일(가해)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 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 쇄 가톨릭출판사

전 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부활하신 예수 | 이남규 루카, 67x125cm, 레드케임 기법, 1985년, 인천교구 가좌동성당

입당송 |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 예제 34,11-12.15-17

화답송 | 시편 23(22),1-2 7.2L-3.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1코린 15,20-26.28

복음환호송 |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 마태 25,31-46

영성체송 |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성웅 유스티노 신부 | 사회사목국 부국장

| 성군(聖君)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 하느님의 어린양 등등. 그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바로 왕입니다. 왕은 그가 한 말과 행동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군(聖君), 혼군(昏君), 폭군(暴君).

성군(聖君)은 꼭 필요한 왕입니다. 자신의 모범적인 말과 행동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길이 기억될 업적을 남기는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왕 밑에 사는 백성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백성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태평성대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예수님 왕은 바로 이런 존재이십니다. 성군이 다스리는 때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게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면서 살아가기에 쉽게 극복이 됩니다.

혼군(昏君)은 있으나 마나 한 왕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런 왕 밑에 사는 백성은 괴롭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한 번 뒤집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폭군(暴君)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할 왕입니다.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말고는 한 게 없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 왕 밑에 사는 백성은 새날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새날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성군 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혼군 밑에는 자기 잇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폭군 밑에는 폭군 못지않은 악인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신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는 훌륭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솔직히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힘으로, 공명정대한 시스템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자기 잇속만 챙기고자 하는 사람, 악한 마음만 가득한 사람을 정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군은 궁 밖에 몰래 나가는 야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눈과 귀를 대신할 수 있는 암행어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오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군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삶의 모습을 따르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과
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

새벽에 동이 터오고 어두웠던 성전에 점점 푸른빛이 차오릅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한 빛은 형형색색 구원의 무지개색으로 온통 성전을 물들입니다. 성전 안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듯, 저도 제 주변을 사랑의 빛으로 물들여 가고 싶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작은 사랑으로 저 자신이 스테인드글라스가 되어 하느님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주실 분



한경아 아녜스 | 작가

고교 시절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의 세례명은 스테파노였습니다. 좋은 분이시다보니 ‘스테파노는 모두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감사함 덕분에 일까요, 아니면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 때문일까요. 저는 입학식 때 하느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한 아이에게 세상이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남편은 첫 만남에서 자신을 ‘스테파노’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또 한 명의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20여 년을 함께 한 지금도 저는 스테파노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감사가 커진다는 뜻인가 봅니다. 지난 날 원장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한 아이의 세상이 되어주고 싶다는 바람이 커져갔습니다. 때마침 보육 시설의 부원장님으로 계신 조반니 신부님께서 초등학교를 위한 가톨릭스카우트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저희는 그곳에서 사랑스러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40여 명의 아이들이 성모님께 편지를 쓰고 손수 만든 묵주를 쥔 채 소리 높여 성모송을 외칠 때면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 집니다.

스카우트 활동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저희는 삼촌과 이모가 됩니다. 유난히도 남편을 따르던 소피아에게는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소피아는 한 달에 한 번 저희와 바깥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야무지게 성호를 긋고 “대부모님의 진짜 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모든 때는 하느님이 정하시는 것”이라며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희는 소피아에게 대부모가 아닌 부모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다. 이는 저희가 더 이상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피아 역시 나고 자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죠.

시설과 의논해 소피아의 선택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나름 심사숙고한 소피아는 “대장님이 없으면 친구들이 슬퍼할 것 같다.”며 자신 또한 “사람들을 모두 만나지 못하면 슬플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이어서 “모두가 슬퍼하지 않을 때 갈 테니,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소피아의 기도처럼 그때는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될 테니,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따뜻한 선택 덕분에 저희 또한 스카우트 대장으로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련의 모든 일들은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를 위해, 부모가 그리운 소피아를 위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이자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에페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니까요.



보편 사제직(2): 세례받는 모든 사람이 받는 사제직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보편 사제직에 대하여 장엄하게 선포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신앙이 중대하게 위협받거나 신자들의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 세계 목자들이 모여 올바른 신앙을 선포하고 교회의 나아갈 바를 밝히는 ‘보편 공의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2천 년 교회 역사에서 21번째 보편 공의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인 〈인류의 빛〉을 선포합니다. 교회현장은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사명을 받았으며,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 문헌에서 대사제 그리스도께서 (히브 5,1-5 참조) 새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되게 하셨습니다.”(묵시 1,6; 5,9-10 참조)고 하면서 보편 사제직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보편사제직은 평신도들이 받는 사제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 사제직은 교황님을 포함해서 세례받은 모든 이가 받는 사제직입니다. 성직자들(직무 사제직을 받은 분)은 교회 안에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당연히 보편 사제직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에서 세례 성사는 침수, 곧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태로 거행되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데,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남을 의미했습니다.(로마 6,1-11참조) 따

라서 침수 형태로 거행되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대사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우리를 당신의 사제직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편 사제직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 걸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새로 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바치며 그들을 어두운 데에서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 주신 분의 능력을 선포한다.(1베드 2,4-10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며,(사도 2,42-47 참조)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로마 12,1 참조)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1베드 3,15 참조)(교회헌장 10항)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우리가 품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편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유다인들의 고발과 바오로의 투옥 (23,12-24,27)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거짓을 감추기 위해 맹세하는 이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우리가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길 원하십니다.(마태 5,34-37 참조) 바오로를 향한 유다인들의 맹세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를 심문했던 최고 의회의 유다인들은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맹세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맹세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수치와 잘못을 덮기 위한 맹세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은 그들의 맹세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맹세를 이용해, 바오로를 카이사리아로 보내어 로마 여정의 초석을 만드십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일은 오묘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행동하지만,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인간적 속단은 하느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인과 바오로가 카이사리아 총독인 펠릭스 앞에서 설전을 벌입니다. 설전의 핵심은 바로 새로운 길에 대한 것입니다. 최고 의회가 고용한 법률가 테르틸로스는 바오로가 나자렛 분파라고 하는 새로운 길의 괴수라는 사실과 유다인 사이의 마찰 문제를 고발합니다. 이에 바오로는 그들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분

명히 하면서, 그들이 말한 새로운 길이란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유다교의 계승에 관한 것이라 항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총독 펠릭스는 자신의 유대인 부인 덕분에 그들이 논쟁하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알고, 바오로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바오로를 감옥에 가둔 채 재판을 연기합니다. 이 상황은 바오로에게 또 다른 복음 선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펠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향한 복음 선포입니다. 여기서 루카는 바오로가 전한 복음이 ‘의로움과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24,25)에 관한 것임을 언급합니다. 이전까지 복음 선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이는 총독 펠릭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는 의롭지도 못했고, 특히 여러 왕비와 결혼한, 절제가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펠릭스는 드루실라를 포함해 세 명의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오로가 선포한 내용은 펠릭스의 과거 삶이었고, 이를 들은 펠릭스는 두려움만을 느낀 채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루카는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삶을 강조한 듯 합니다.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붓고, 성유를 바르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절제를 추구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레퀴엠(Requiem)

“인자하신 주 예수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 · 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 감독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신경을 통해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리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사도신경)라고 가르치고 고백합니다.

이에 ‘죽은 자들을 위한 전례’(Liturgia defunctorum)를 통해 돌아가신 분들 특히 연옥 영혼을 기억하는데, 통공의 신비 속에서 죽은 이들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전례는 ‘미사’와 ‘연도’로 구별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Missa in exsequiis)를 ‘레퀴엠’(Requiem)이라고 하는데, 입당송의 첫 구절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의 첫 단어가 ‘레퀴엠’(Requiem, 안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음악은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현대음악까지 레퀴엠을 풍성하게 보존하며 창작하고 있습니다.

통상부분과 고유부분을 모두 노래하는 레퀴엠에서, 대영광송(Gloria)과 신경(Credo)은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Agnus Dei)에서 “자비를 베푸소서” 대신에 “그에게 안식을 주소서” 그리고 “평화를 주소서” 대신에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연송(Tractus)이 알렐루야(Alleluia)를 대신하고, 부속가(Sequentia)가 이어집니다. 부속가 ‘분노의 날’(Dies irae)은 트리엔트 공의회 때 공식 전례로 확정되었다가, 현재 “장례식은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카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는 공의회 정신에 따라 장례미사에서 생략되었지만, 여전히 교회음악의 탁월한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속가는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1984년에 제작된 영화 ‘아마데우스’(Amadeus)에서는 죽음의 병상에서 모차르트가 부속가 중 ‘콘푸타티스 마레딕티스’(Confutatis maledictis, 저주받은 이들이 심판받을 때)를 살리에로 하여금 대필하게 합니다. 특히 “보카 메”(Voca me, 저를 부르소서)라는 부분은 죽음에 직면한 모차르트의 기도를 간절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어지는 모차르트의 장례식에서는 ‘라크리모사’(Lacrimosa, 눈물의 그 날)가 배경음악으로 흐릅니다.

베르디 레퀴엠의 부속가 중에서 첫 번째 곡, ‘디에스 이레’(Dies irae, 분노의 날)는 많은 매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선율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속가(Dies irae)의 마지막 절인 ‘피에 예수’(Pie Jesu)는 독립적인 곡으로 구별되어 ‘하느님의 어린양’ 전이나 ‘거룩하시도다’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위치합니다. ‘피에 예수’(Pie Jesu)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

*Pie Jesu, Domine, dona eis
requiem sempiternam.*

인자하신 주 예수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모차르트(Mozart), 콘푸타티스 마레딕티스(Confutatis maledictis)

모차르트(Mozart), 라크리모사(Lacrimosa)



베르디(Verdi),
디에스 이레(Dies irae)

포레(Faure),
피에 예수(Pie Jesu)



마음의 심폐소생술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영성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릇된 죄책감과 죄의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죄책감을 만나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비뚤어진 애착’과 ‘애착에서 비롯된 행위 자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죠. 결국, 마음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합니다. 기쁘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밝고 선한 마음은 우리를 건강한 생각, 선한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큼니다. 반면에 어둡고 악한 마음은 우리를 왜곡된 생각, 그릇된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크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의 시작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 안에 먼저 ‘정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정서 반응에 더해서 자극에 대한 해석, 기억, 판단 등의 ‘인지 작용’이 이어지죠. 인지 작용은 다시 새로운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 반응과 인지 작용에 ‘의지와 태도’라는 일종의 경향성(습성)이 합쳐져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세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상태죠. 이런 하느님의 바람을 따라 우리 스스로 행복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 마음의 충동이나 애착을 무턱대고 따라가지 않게 하려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잘 다독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해 아파하는지를 들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마음 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일상의 삶과 하느님을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여러 힘든 마음(자책감, 무력감, 실망, 외로움 등)은 별개이고, 하느님 앞에서는 찬미와 감사, 기쁨 등을 ‘마땅히’ 느껴야 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되지 않으니, 다시금 스스로 탓하게 되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듯, 영성은 삶이고, 우리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심리’입니다. 심리 차원을 잘 돌보지 않고서는 하느님과의 참된 영적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나의 마음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에제 36,26)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1월 26일)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며 오늘부터 ‘성서 주간(11월 26일~12월 2일)’이 시작됩니다

성서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이승규(19서품) 신부	해외선교	면직

알림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12월 3일(주일)은 ‘대림 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은 ‘나해’를 따르게 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건설업체 정규 등록 신청 안내

정규 등록 분야: 신축, 리모델링

등록 신청 기간: 11월 20일~12월 15일

자격 및 서류 제출, 심사, 등록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https://aos.catholic.or.kr>)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또는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http://www.catholic.or.kr>) 하단 ‘교구’란의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참조

위령 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기도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교구청 알림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2023년 정기 세미나

주제: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 - 참 부모됨
때, 곳: 12월2일(토) 14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문의: 02)460-7623 / 주교회의 홈페이지(www.dccb.or.kr) 참조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12월7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12월7일부터 매주(목)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이선 개인전: 1전시실
대림공예성물전 '빈손': 2전시실
글아갤리아카데미 회원전: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29일(수)~12월7일(목)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3년 대림 특강

때, 곳: 12월4일~18일 매주(월) 19시~20시, 명동대성당 대성전(3주간) / 문의: 02)774-1784

12월4일(월)	생명이 생명에게 건네는 말	강명옥 수녀
12월11일(월)	케렌시아(Querencia) - 안식처	이문수 신부
12월18일(월)	생의 말기의 의미	오석준 신부

제48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일반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누구나
내용: '생물다양성'(한정택 명예교수, 서강대 생명과학과)
때: 11월29일(수) 19시~21시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녘 본당' 미사)

때, 곳: 1394 미사 11월2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강서 분당, 기림리 분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녘분당을 위한 묵주 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024 가톨릭종교교육자 피정

주제: 이나시오 영신수련법을 통한 묵상기도
대상: 서울 시내 중 · 고등학교 교사, 교직원(가톨릭 신자)
때: 2024년 1월18일(목)~20일(토) 2박3일
곳: 성 바오로 피정의 집(시흥)
강의: 김동일 신부(예수화) / 신청: 구글 온라인 신청서
인원: 40명(선착순) 12월1일부터 접수
문의: 02)566-5456 학교사목부 사무실

학교사목부 교육봉사자 모집

서울 시내 초 · 중 · 고등학교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인성교육'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건진성사 받은 신자, 만20세~60세 해당자
곳: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때: 2024년 1월3일~5일 · 2024년 1월10일~12일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11월27일~12월29일
회비: 10만원 / 문의: 02)553-7321(일, 월 휴무) 자세한 문의는 전화, 홈페이지(www.kycc.or.kr) 참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11월30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제: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삶을 통해 바라본 병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병원사목위원회 / 문의: 02)727-2050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함께 성경 읽기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12월9일(토)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202호(구 계성여고)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신청: 11월20일(월) 10시~12월1일(금) 16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3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영성심리특강(송봉모 · 오웅진 · 홍성남 · 김하중 신부), 이나시 작가의 영적글쓰기, 건강한 겨울 보내기(윤제원 정신과 의사)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오사카
회비: 120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자랑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2월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ICPE 4가지 없는 청년들을 위한 피정

대상: 고3 이상 청년 누구나 / 문의: 010-5320-0419
때, 곳: 12월10일(일), ICPE 센터(합정) / 회비: 1만5천원

12월 '심' 침묵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 40대~50대 기혼 여성 / 회비: 6만원
때, 곳: 12월8일(금) 20시~10일(일) 10시, 명륜동
문의: 010-2621-6595 (문자 접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 완독	12월8일(금)~16일(토), 2024년 1월5일(금)~13일(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 II	12월27일(수)~29일(금)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곳: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문의: 02)990-1004 / 개인·단체 피정 접수 가능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12월1일 10시~15시30분
대림 피정	12월5일~12월19일 매주(화) 10시~16시
대침묵 피정	12월8일~10일(2박3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
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2월15일~17일, 2024년 3월10일~12일
연말연시 피정	12월29일~1월1일(눈꽃산행)
눈꽃산행	1월20일~22일, 1월26일~28일, 2월2일~4일, 2월17일~19일, 2월25일~27일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12월15일(금)~20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2024년 1월19일(금)~21일(일)	구본만 신부(서울대교구)
2월16일(금)~18일(일)	한정현 주교(대전교구)
3월28일(목)~31일(일)	성주관 피정(기도학교)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내용: 오웅진 신부 특별 강의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피는기도모임
때, 곳: 12월2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11월28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이상기 회장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말씀여행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 문의: 010-2034-0042

때, 곳: 12월15일 19시~17일 점심, 도미니코 수도원(강북구 수유동) / 강사: 안소근 수녀
회비: 20만원 / 접수: 0808dominic@naver.com

토마스 머튼 영성배우기 피정(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내용: 박재찬 신부의 머튼영성 강의(총12회)
때, 곳: 2024년 매일 둘째주(토) 10시~16시, 성 베네딕도 서울 피정집(장충동) / 문의: 010-8719-8608 (문자)

해맞이 피정

때: 12월30일(토) 16시~2024년 1월1일(화) 13시
곳: 왜관 피정의 집(주최) / 회비: 25만원
계좌: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천주야기 태어나심은 '모든 이들에게 천당길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 찬양: 고영민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일 둘째주(토) 12월9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해돋이·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월2일, 한라산 자연순례 12월8일~10일, 12월16일~18일, 눈꽃산행 1월6일~8일, 1월12일~14일, 1월19일~21일, 1월27일~29일, 2월3일~5일, 2월14일~16일, 2월23일~25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특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정규한 신부의 '하느님 안에서 세상보기'
때: 12월5일 개강, 매주(화) 13시30분(10주)
곳: 삼성동 / 강의 방법: 화상, 대면, 녹화 강의 병행
인원: 선착순 15명 / 문의(접수): 010-3845-3045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북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1) 영성심리학으로 보는 인물 치유 특강

때: 매주(일) 14시~16시(16시 주일미사)

2) 대림 피정

때: 12월6일(수) 10시30분~17시30분 / 미사: 이용권 신부

1강	정대영 신부	2강	한영임 회장
----	--------	----	--------

1년에 읽는 구약성경(Zoom)

지도: 김성태 신부(작은형제회·주최)
때, 곳: 2024년 1월~12월 (일) 16시~18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회비: 12만원씩 4회 / 문의: 010-4598-6912

성물·묵주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양업고등학교 2024년 신입생 모집

때, 곳: 2024년 1월5일~7일(2박3일), 양업고등학교
접수: 12월19일(화) 오전 10시 / 문의: 043)260-5076
방법: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 / 회비: 15만원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10주년 이벤트

회비: 일반·첫걸음 2만5천원, 단과 1만원
사이버성경학교 연수회(홈페이지 참조)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4년 전기(1차) 신입생 모집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 제2과정(석사과정)
인터넷 접수: 12월7일(목) 17시까지 / 문의: 02)2164-6521
구술고사: 12월11일(일) 14시 / cugkscl@catholic.ac.kr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주제: '상처와 용서' 다시 보기 / 문의: 02)705-4711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때: 11월27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024년 2월16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2024년 1월16일(화)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1시~15시40분(2년, 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각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1시~15시40분(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정)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에파타성당 수어교실

회비: 6개월 12만5천원(교재비 5천원 포함)
문의: 02)995-7394(scdeaf01@hanmail.net)

2024년 개강	에파타성당	명동대성당 범우관 409호
1월10일(수)	13시30분~15시	.
1월11일(목)	20시~21시30분	19시~20시50분
1월12일(금)	.	19시~20시50분

제23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bpcamp.com)

미국 LA영어캠프(3주)	2024년 1월10일~30일 / 디즈니랜드, UC버클리·스탠포드·UCLA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4주)	1월10일~2월3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정글투어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음악이 있는 대림 특강

강사: 박병규 신부 / 찬양: TALK IN US
 때, 곳: 12월8일 오후 7시40분, 청담동성당
 문의(접수): 02)945-5985 생활성서사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2월12일~26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풍물패 '풍물림'

장구, 북, 팽과리 같이 배우고 싶은 분 초대합니다
 때, 곳: 매주(월) 19시, 노동사목회관
 회비: 3만원(수시 모집) / 문의(접수): 010-3239-9308

모집

서초동성당 헬름 오케스트라·콰이어 전공자 모집
 대상: 작곡, 바이올린, 클라리넷, 비슨, 성악 / (월)21시 미사
 접수: cafe.naver.com/caelumorch / 010-4002-3074

미사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11월30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12월2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9기 수료 미사

때, 곳: 12월3일(일) 15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53-8765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12월2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11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1월29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과 미사
 때, 곳: 12월1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11월2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이재원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김평만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기념미사

때, 곳: 12월8일(금) 19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미사곡: 모짜르트 Missa in C Coronation Mass
 명동대성당 연합 합창단 / 지휘: 최호영 신부
 문의: 02)774-1784 명동대성당 성음악봉사분과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겨울 성소 피정

1)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 문의: 02)828-3522
 때: 11월27일(월) 11시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4층
 2) 2024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 문의: 010-6221-3520
 대상: 고1~35세 미만 남성 / 12월31일까지 접수
 때, 곳: 2024년 1월19일~21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이슬리시미 팔레스트리나미사 연주

때, 곳: 11월30일 19시30분, 서울성공회대성당
 전석 3만원 / 문의: 010-9842-8818 시스미나 음악원

가톨릭여성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미사: 손희송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
 때: 11월28일(화) 10시30분 / 문의: 02)778-7543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2층)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되
 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번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햇살학부모 상담전화(햇살사목센터)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님의 상담을 받습니다
 문의(상담전화): 02)744-0841 (일)·(월) 12시~15시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2438-2377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신문사 신입직원 모집

분야: 취재기자, 광고홍보 사원 / 11월30일(목)까지 접수
 홈페이지(www.catholictimes.org) 참조

H2빌 생활재활교사(정규직) 모집

장애인거주시설 H2빌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 모집
 곳: 강서구 개화동 330(전철 5호선 방화역) / 02)6925-2366

세종로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 행정
 ·회계 업무·PC 업무 가능한 분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이메일(prayforus@seoul.catholic.kr) 및 우편(우
 03169,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9 세종로성당)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청 재무회계팀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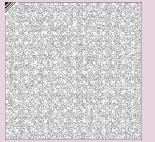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분, 관련 경력자 우대
 분야: 재무회계 담당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2월3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
 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
 (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말씀의 회	11월26일(일) 15시	수녀원(신내동성당)	010-8446-3217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구제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대림·성탄 추천 도서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대림·성탄 추천 도서

대림 묵상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6천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 써 내려가는 영성 일기

‘오늘의 묵상’을 읽고 답하며
나만의 묵상 노트를 완성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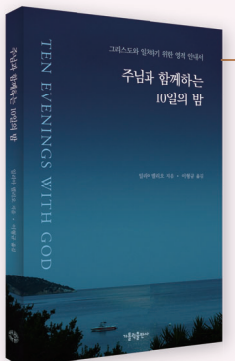
대림·성탄 추천 도서

별이 빛난다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지음 | 1만3천원

내 안의 반짝이는 별을
찾아 떠나는 여행

주님이 심어주신 갈망을
발견하는 특별한 묵상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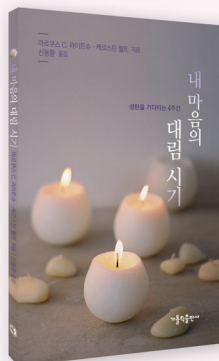
대림·성탄 추천 도서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일리아 델리오 지음 | 1만6천원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한
영적 안내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깨닫는
열흘간의 성찰의 밤



대림·성탄 추천 도서

내 마음의 대림 시기

마르쿠스 C. 라이트슈 외 지음 | 8천원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돌아보는 대림시기

기쁨과 희망으로 묵상하며
실천으로 채워보세요

2024년 교황님과 함께하는 기도지향 탁상 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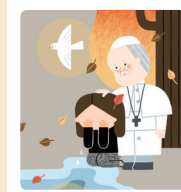
2024년, 바티칸뉴스 한국어 페이지에서 제작한 탁상 달력과 함께
매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지향을 기억하며 기도해 보세요.



교회 내 다양성의 선물
영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되는 바티칸 뉴스의
영국어 판본이 이제 한국에서도 간접을 본다.
영국판과 더불어 바티칸 뉴스의 영적 지도
주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달의 기쁨
교회는 온전하게 사랑과 기쁨의 화해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기쁨의 화해입니다.
바티칸 뉴스의 영적 지도



3월의 기도 모음
이달의 기도 모음은 바티칸 뉴스의 영적 지도
주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를 모아
본다.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임 명 》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실 사목협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회장단

- * 총회장 : 서범석
* 부회장 : 이정옥, 송길영, 박지원

기획총무팀

- * 팀 장 : 이규웅 * 부팀장 : 최선정
* 위 원 : 백정원, 안혜임, 조현진, 조은주

봉사뱅크 박명연, 이서영

김 시 윤영철, 문 훈

상소위원회 정진철

시설봉사분과

- * 분과장 : 신윤훈 * 부분과장 : 김윤배

장년봉사분과

- * 분과장 : 문대경 * 부분과장 : 임태우
김동수 (종현회) 김주현 (대건회) 이규웅 (범우회)
김윤배 (광암회) 윤영철 (하상회) 문대경 (만천회)

구역봉사분과

- * 분과장 : 김영숙 * 부분과장 : 노순이

가정생명봉사분과

- * 분과장 : 서민지 * 부분과장 : 유정원
김정렬 (겨자씨회)

사회사목봉사분과

- * 분과장 : 박종상 * 부분과장 : 조준형
김우정 (연령회) ○○○ (엘리사벳장학회)

재정봉사분과

- * 분과장 : 황인석 * 부분과장 : 유기석

노년봉사분과

- * 분과장 : 김태성 * 부분과장 : 이태형
최인균 (요셉회) 이정옥 (안나회)

신학교육봉사분과

- * 분과장 : 김태현 * 부분과장 : 정서연
이재문 (울뜨레아) 권일환 (마리아와 마르타)
조성지 (성서백주간) 이우준 (선교부)
이희정 (예비자 나눔교리 봉사회)
김연재 (가톨릭 성서모임)
김경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Cu.)
김성진 (천주의 성모 마리아 Cu.)
정서연 (평화의 모후 Cu.)

진례봉사분과

- * 분과장 : 류태규 * 부분과장 : 박지선
신윤훈 (성체분배단) 안선희 (미사해설단)
이재민 (주일독서단) 강은실 (평일독서단)
박광원 (새벽미사봉사단) 최교은 (성지미사봉사단)
이지은 (영어미사봉사단) 임지현 (소년복사단자모회)
○○○ (성인복사단)

성음악봉사분과

- * 분과장 : 호지은 * 부분과장 : 이은미
김세령 (가톨릭합창단) 신기숙 (가톨릭여성합창단)
송선배 (로고스합창단) 함정규 (세라핌합창단)
김은영 (반주단) 강석희 (기쁜소리합주단)
이보미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청년봉사분과

- * 분과장 : 김범석 * 청년부분과장 : 박찬희 * 청년간사 : 김수진
* 3545부분과장 : 김연재 * 3545간사 : 이현우
함승혜 (청년레지오 - 모든 이의 어머니 Cu.)
최세연 (청년성서모임) 이우리 (3545청년성서모임)
황수아 (청년성가대 엘리) 이재훈 (3545성가대 카이로스)
장정여 (청년전례단 웨마) 박가영 (3545전례단 아뉴스데이)

문화예술봉사분과

- * 분과장 : 최지영 * 부분과장 : 김형연

장애인신앙교육봉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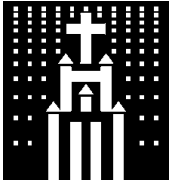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 * 분과장 : 장인선
김효진 (아미쿠스 주일학교)

☞ 성함이 진하게 표시된 상임위원은
올해 새로 선임된 봉사자입니다.

2023년 11월 26일
주임신부 조성홍 (아우구스티노)



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좌명동대성당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평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전두병(요 아 김) 신부
부 주 임 진슬기(토파스아리스)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좌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보좌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좌 리백진(파비아노)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75	봉헌 : 215, 220, 513	성체 : 174, 506, 180	파견 : 73
-------	---------	--------------------	--------------------	---------

● 12월 예비신자 교리반

12월 교리반 입교 시 세례성사는 2024년 6월에 거행되며, 12월 3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 본관 5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수요반	오후 7:30	교구청본관 402호	류지인 (야고보) 신부
주일반	오후 4:00	교구청본관 401호	이 마리헬렌 수녀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여 필수
- 전화·사전 신청 불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 준비물 :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첫 수업일 : 수요반(12월 6일), 주일반(12월 10일)

● 2023년도 명동대성당 대림 특강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대림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8시 / 대성전

일 자	주 제 & 강 사
12월 4일 (월)	생명이 생명에게 건네는 말 강명옥 (안나) 수녀님 -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원장 -
12월 11일 (월)	케렌시아(Querencia) - 인식지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 -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12월 18일 (월)	생의 말기의 의미 오석준 (레오) 신부님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

● 성소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매월 네 번째 주일 오전 11시 미사는 본당 성소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지향으로도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소후원회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들과 성소자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사제·수도자 양성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성탄 판공성사표 배부

대림 제 1 주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성탄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명동 교적 신자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에서 성사표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성탄봉헌금 접수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성당 안과 마당에 마련될 구유와 제대 트리, 꽃 장식을 위한 '성탄봉헌금'을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2024년도 달력 배부

대림 제 1 주일인 12월 3일, 성당마당 천막에서 2024년도 달력을 배부합니다. 당일 주보를 지참하시고 '한 가정에 한 부씩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희망 트리'에 소원을 달아 드립니다!

대림 기간 동안 주일미사 때 본당에서 제공하는 색종이를 받아 소원을 적어 접수하시면 '희망꽃'에 담아 성당마당 '희망 트리'에 달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비신자도 참여 가능)

●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III - 박진형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장소 : 12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 패밀리아 채플
※ 자세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2023년 하반기 견진성사 사진 찾아가세요!

·장소 : 명동대성당 범우관 403호 사진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1/13-11/19).....18,750,000
- 연중 제 33 주일 헌금.....35,268,000
- 감사헌금 (11/13-11/19).....1,778,500

권 라파엘 / 김 세레나 / 김 연희마리아
김 요안나 / 류 가브리엘라 / 박 마리스텔라
박 세레자 요한 / 방 데보라 / 신 헬레나
심 알베르토 / 오 라파엘 / 유 마리아
이 라파엘라 / 이 마리아 / 이 프란치스코
임 사무엘 / 정 젤뚜르다 / 조 엘리사벳
지 아델라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미사)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 · 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월	07:00, 18: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평일미사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Sun.	08:30 - 08:5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Fri.	16:00 - 18:00	Sat.	15:00 - 17:00		